

성인 신증후군에 대한 임상 및 병리학적 고찰

계명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병리학교실*

성정훈 · 윤정수 · 진규복 · 곽진호 · 황은아 · 한승엽 · 박성배 · 김현철 · 최미선*

목적 : 신증후군의 흔한 원인 질환은 나이, 성별, 사회 경제적 여건 등에 따라 차이를 보이지만 인종, 민족 등 유전적인 요인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서구에서는 막성 신염이 성인 특발성 신증후군의 가장 흔한 병리학적 유형이지만 이와 달리 한국에서는 미세변화형 신증이 가장 많다는 보고가 있다.

방법 : 연자들은 1978년 12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28년간 계명대 동산병원 내과에서 신생검을 시행한 2,882예 중 특발성 신증후군으로 신생검을 시행한 만 15세 이상 성인 환자 906명을 대상으로 병리학적 유형, 연령별, 성별 및 관찰 시기에 따른 병리학적 유형의 발생 빈도에 대해 조사했다.

결과 : 총 906명의 전체 특발성 신증후군 환자들의 평균 연령은 36.3세였으며 남자 568명, 여자 338명으로 남녀비는 1.68:1이었다. 전체 특발성 신증후군의 병리학적 진단은 미세변화 신증이 50.3%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막성 신병증 20.0%, 국소성 사구체 경화증 12.7%, IgA 신병증 9.7%, 막중식성 사구체신염 4.2% 순이었다. 연령별로는 30세 이하가 전체의 45.2%였고 31세 이상에서 54.8%였다. 연령에 따른 병리학적 유형의 빈도는 50세 이하의 연령군에서는 미세변화 신증의 빈도가 55.4%로 가장 높은 반면 51세 이상의 연령군에서는 막성 신병증이 40.5%로 가장 높았다. 총 906명의 환자를 발생 시기별로 1978-1990년까지, 그리고 1991-2005년까지 양군으로 구분하여 병리학적 진단의 변화를 보면 미세변화 신증은 52.4%에서 49.2%로 유의한 변화가 없었고 ($p=NS$) 막성 신염은 13.4%에서 23.5%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p=0.000$). 국소성 사구체 경화증은 각각 15.0%, 11.5%로 오히려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고 ($p=NS$), 막중식성 사구체신염은 7.4%에서 2.2%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p=0.001$). IgA 신증은 7.0%에서 11.1%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p=NS$).

결론 : 성인의 특발성 신증후군의 가장 흔한 병리학적 유형은 미세변화 신증이었으며 그 다음은 막성 신염이었다. 50세 이하에서는 미세변화 신증이 가장 흔한 병리학적 유형이었으나 50세 이상에서는 막성 신염이 가장 흔한 병리학적 유형이었다. 성인 특발성 신증후군의 보다 정확한 역학을 알기 위해서는 다기관 공동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